

●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시나가와의 후지산 신앙 단체

후지산 신앙과 시나가와

일본에는 산에 신과

부처가 깃들어 있다고 하여,

산을 숭배하는 인식이

예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후지산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많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일련종(日蓮宗) 승려인 닛신이 1470년에 남긴 기록을 보면, 시나가와의 해운 상인인 스즈키 도인이 매년 6월에 관리를 6명씩 후지에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무렵에는 후지산을 등산함으로써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후지산은 참배를 위해 찾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후지산 신앙 단체와 후지쓰카(富士塚)

에도 시대가 되자 후지산 신앙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 각지에 후지산



▲ 「후지산 참배 안내」 우타가와 사다히데(하시모토 교쿠란사이) 작 1859년 시나가와 역사관 소장

신앙을 위한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후지산의 신에 제사를 지내고, 멀리서 후지산에 절을 하고, 진짜 후지산 대신 오르기 위해 후지산을 본뜬 작은 산인 ‘후지쓰카(富士塚)’를 쌓았습니다. 시나가와 신사 경내에 있는 ‘시나가와 후지’는 시나가와 역참마을의 신앙 단체인 마루카코에 의해 1869년에 축조된 것입니다.

시나가와 후지의 야마비라키

시나가와 역참마을의 후지산 신앙 단체는 6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마루카코 및 야마세이코는 하나의 단체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마루카코뿐입니다. 지금은 구성원도 줄었지만, 전성기에는 300명을 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마루카코의 주된 활동 내용은 시나가와 후지의 야마비라키(그 해 처음으로 등산을 허용하는 것) 행사 및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하는 후지산 등산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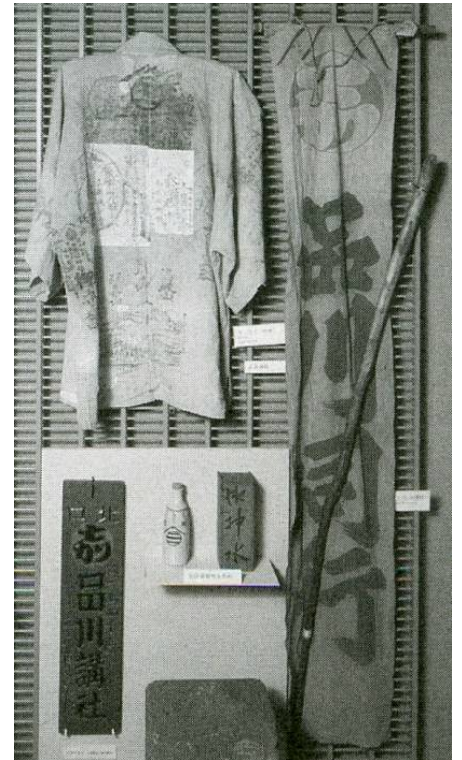
시나가와 후지의 야마비라키는 지금도 매년 7월 1일에 열립니다. 단체의 구성원은 시나가와 후지 옆에 있는 센겐 신사에 흰옷 차림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시나가와 후지에 올라, 종턱의 신사나 산정상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 밖에도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후지산 숙소에 모여 축문을 올립니다.



▲시나가와 후지의 야마비라키 행사 (시나가와구 지정 무형 민속문화재)

1930년대~1940년대의 후지산 등산 현재 마루카코에서는 후지산을 등산하지 않지만,



▲후지 신앙 관련 사료 (에노모토 지로 씨 기증, 시나가와 역사관 소장)

옛날에는 2박 3일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등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거 마루카코의 대표를 맡았던 고(故) 에노모토 지로 씨에게서 들은 내용입니다.

매년 6월이 되면, 후지산 기슭에서 참배자들의 숙박을 돕는 사람이 마루카코에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고정적으로 거래를 하여 숙소는 항상 정해져 있었는데, 마루카코의 숙소는 후지요시다에 위치한 '기쿠야'라는 집이었습니다. 6월 하순, 시나가와 신사 내에 있는 미타케 신사에

등산 날짜를 언제로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신사에서 정한 일정을 벗어나 산에 오르면
산이 험해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에노모토 씨가 처음으로 후지산을 오른
것은 1937년, 12살 때였습니다. 참고로 처음
후지산에 오르는 나이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30~40명 정도가
시나가와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 기쿠야에
도착한 후, 연습 삼아 약 5km 거리의
요시다타이나이까지 왕복했습니다.

도착한 날에는 기쿠야에서 하룻밤 묵은 후
다음날 새벽 4시경에 흰옷을 차려 입고,
지팡이를 들고 출발했습니다. 먼저
후지요시다에 위치한 기타구치혼구 후지센겐
신사를 참배하고 나서 버스로 표고 1420m의



▲1930 년대의 후지산 등산 모습
(에노모토 지로 씨 제공)

우마가에시까
지 간 다음,
우마가에시에
서 요시다구치
등산로에
올랐습니다.

짐은 기쿠야의 짐꾼 2명에게 맡겼기에 손에
든 것은 물통과 간식 정도였습니다.

도중에 교가타케(표고 2,386m)의 불당을
참배한 후 후지산 정상(표고 3,776m)에
도착하면, 분화구 가장자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고, 후지산 측후소(2004년 폐쇄) 근처에서
참배했습니다.

여기에서, 분화구 둘레를 계속 돌 사람과
중턱을 일주할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전자는 분화구 둘레로 먼저 가서 올라왔던
요시다구치 등산로로 내려가, 8부 지점
아래의 마루코 지정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한편, 에노모토 씨를 비롯한 후자는
고텐바구치 등산로로 내려가 표고 2,702m의
호에이산 동굴(지금은 없어짐)에서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계 방향으로 후지산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험한 곳인 오사와노
와타시바(현재 통행 불가)를 건너기 전에는
축문의 일부를 소리 내어 읽으며
참배했습니다. 이곳을 건너면 산장(지금은

없어짐)이 있는데, 여기서 점심으로 우동을
먹었습니다.

산장에서는 숙소 관계자로부터 지급받은
천에 도장을 받고, 나중에 이 천을 흰옷에
꺾매 붙였습니다. 또 종이도 얻어서 지팡이를
짚는 쪽에 덮어씌워 그 후에는 지팡이를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서 오후 3시경에 고미타케
신사에 도착하여, 분화구 둘레를 돌고 온
사람들과 합류해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요시다구치 등산로에서 하산하여 기쿠야에
숙박하고, 다음날 시나가와로 돌아왔습니다.

산정상에서 떠온 물을 ‘신성한 물’이라고
하여 나중에 구성원에게 나눠주고, 회비를
모았습니다. 회비는 일년에 한번, 이때만
거뒀습니다.